사상 첫 TK 출신 대표…“정권교체 디딤돌 놓겠다”

의미와 과제

친문 지지로 압도적 당선
계파 청산 당 통합 숙제
“사드 반대 당론 채택할 것”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이자 TK(대구·경북) 출신인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선장으로 우뚝 섰다.

60여년 민주당사(史)에서 TK 출신 당수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천년민주당 시절인 2000년 경북 울진 출신의 김중권 대표가 있었으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경우여서 실질적 당수는 아니었다.

추 신임 대표는 한국 정당사에서 여성 당수 계보도 새로 썼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당대표는 고(故) 박순천 여사다. 박 여사는 1963년 민주당, 1964년 통합야당인 민중당 총재를 각각 역임했다. 그는 당시 야당의 최고 원로이자 최다선(5선) 여성이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87년 대선 패배 뒤 평화민주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고 박영숙 여사가 총재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정당 사상 첫 여성 당수다.

네 번째 여성 당수는 참여정부 때 사상 첫 여성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다.

이 밖에도 2014년 박영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했지만 약 2개월 만에 문희상 의원에게 비대위원장 자리를 넘겼다.

추 대표는 ‘추다르크’와 ‘삼보일배’라는 말로 대변되듯 급격한 부침이 있었던 21년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거쳤다. 열린우리당 분당, 그리고 뒤이은 탄핵 사태로 한때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대척점에 서 있던

추 의원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더민주의 대표가 됐다.

이제 추 대표는 제1야당의 중심추가 돼 10년 만에 정권 탈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친노·친문 세력의 지원 속에 제1야당 수장이 된 추 대표가 계파 논리에서 벗어나 소신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내년 대선에서 이슈가 될 야권 통합을 위한 당 체질을 강화하고 문호를 개방해 결과적으로 야권 통합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칩거에 들어간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를 경선장으로 끌어들여 흥행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한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추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가진 수락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모두 거명한 뒤, “모두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정당사에 길이 남을 역동적인 경선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미애 신임 당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탁소집 딸서 당 대표까지…DJ 권유로 정계 입문

추미애는 누구

추미애 의원이 27일 대선 항해에 나서는 더민주호(號)의 새로운 선장으로 선출됐다.

4·13 총선에서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이 된 추 신임대표는 이제 선출직으로는 더민주 사상 처음으로 TK(대구·경북) 출신 당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의 정치 역정은 파란만장하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전문가 수혈 케이스로 정계에 입문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추 의원이 대표로 당선된 27일은 김대중(DJ)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영입 제안을 받아 입당원서를 쓴 1995년 8월27일로부터 꼭 21년 되는 날이다. 그는 97년 대선 때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면서 높은 대중성에 더해 강한 돌파력, 추진력을 보여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15~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 직설적이고 매서운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당내 개혁적 소장파 그룹인 ’푸른정치모임’의 일원으로서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과 함께 정풍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대위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끌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국민성금을 모아 ’돼지엄마’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추 신임대표는 2003년 민주당 분당사태 당시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하면서 시련의 시기를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에 부딪혔고, 17대 총선에선 구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아 ’삼보일배’를 하는 등 고군분투했으나 대패를 면치 못했고 본인도 낙선했다.

낙선 후 2년간의 미국 유학길에 올라 와신상담한 추 후보는 공백기를 딛고 2007년 구 민주당을 탈당,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며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 서울 광진 을에서 당선됐으며 이후 19~20대 총선에서도 잇달아 승리, 5선 고지에 올랐다.

대구 세탁소집 셋째 딸로 태어난 추 후보는 사법고시 통과 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남인 전북 정읍 출신 남편과 결혼했다. 이로 인해 추 후보는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로 불리게 됐다.

제1야당의 선장 자리에 오른 추 의원이 10년 만의 정권 탈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양향자, 총선 패배 딛고 당 지도부 입성

온라인 당원 몰표 힘입어
유은혜 꺾고 최고위원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변의 주인공은 양향자 신임 여성 최고위원(여성위원장)이었다.

대표 경선은 일찌감치 ‘추미애 대세론’이 형성됐고 오히려 여성 최고위원 경선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 최고위원은 정치신인인데다 원외 인사여서 출마 자체가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경쟁자였던 유은혜 의원은 ‘김근태계’ 재선의원에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당 내외에 좋은 평을 받는 의원이어서 양 최고위원의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었다.

하지만, 양 최고위원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온라인 권리당원의 ‘몰표’에 힘입어 이변을 기록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의원투표에서 47.63%를 득표해 52.38%의 유 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66.54%를 얻어 유 후보(33.46%)를 더블스코어 차로 앞서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친문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당내 역학구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양향자 여성최고위원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었던 양 최고위원은 경선 내내 “여성·호남·학벌 차별을 뚫고 나왔다”면서 눈물의 득표전을 펼쳤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선에서 양향자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호남 민심을 달래고 호남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 양향자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수 시	정 시
인문	신 학 과	4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8	1
사범	유아교육과	19	1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0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7	1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6. 9. 12(월) ~ 21(수) •전형일 : 2016. 9. 30(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전형일 : 2017. 1. 12(목)

대 학 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11. 1(화)
② 전 형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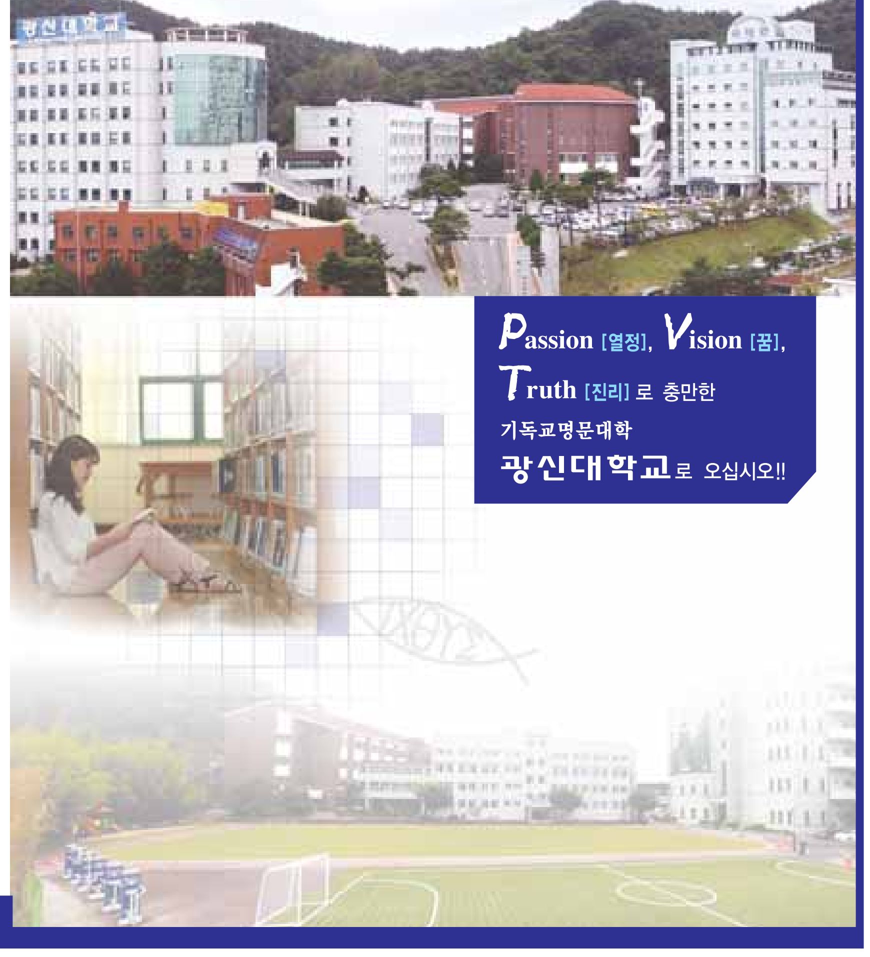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②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목회학과(D.Min.)	2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10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